

농림수산식품부

■ 2011년 농림어업 생산액 51조 2,870억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월 30일 '2011년 농림어업 생산액' 조사 결과에 따라 농림어업 총 생산액이 총 51조2천87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축산업 생산액은 14조9천909억원으로 34.7%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17조4천714억원에 비해 2조4천805억원(14.2%) 줄어든 규모지만 축산업은 농업·농촌의 기본 동력임이 또 다시 확인됐다.

이처럼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FMD에 따른 돼지 생산량 감소와 한우가격 하락에 기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5위 내에는 돼지, 한우, 닭, 우유가 포함되어 있으며, 10위 내에는 계란과 오리가 포함됐다. 1위부터 10위까지 6개 축종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다.

생산액 상위 품목 순위는 1위 쌀(미곡), 2위 돼지, 3위 한우, 4위 닭, 5위 우유, 6위 계란, 7위 오리, 8위 견고추, 9위 인삼, 10위 감귤로 나타났다.

이의 품목별 생산액을 보면, ▲쌀(미곡) 8조88억원 ▲돼지 4조5천446억원 ▲한우 2조8천393억원 ▲닭 2조1천860억원 ▲우유 1조6천517억원 ▲계란 1조5천599억원 ▲오리 1조3천966억원이다.

■ 태풍 '볼라벤' 피해 복구 총력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월 29일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발생한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관련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먼저 지난 8월 30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와 소

속기관 및 단체, 지자체가 공동으로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일손돕기를 추진, 농식품분야 유관기관의 가용인력 7,400여명을 동원하여 낙과 수거, 벼 세우기, 파손된 비닐하우스, 해상·육상 가두리 시설 및 축사시설의 복구 및 철거 등을 실시했다.

긴급 일손돕기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응급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군·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과수농가의 낙과에 대한 별도의 수급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낙과 중에 식용이 가능한 것을 선별하여 '범국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상품성이 떨어지는 낙과는 가공업체에서 구매하여 과일음료 등 가공 용도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낙과 피해 농가에게 낙과를 수집·운반하는 제비용(물류비, 상하차비 등)을 지원하고 낙과를 이용하는 가공업체에게 가공용 자금을 지원한다.

식용이 곤란한 낙과는 액비로 제조하여 과실 유기농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 재해대책법상의 시설 복구 및 생계 지원 등을 추진함과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 피해조사를 통해 보험금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태풍 피해 농어가에 대한 사고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필요시 추정보험금의 50%이내에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 국제곡물가 급등 대응방안, 차질없이 추진 중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월 20일 국제곡물가 급등에 따른 애그플레이션 우려 증가에 대응하여 물가장관회의(8.2일)를 통해 확정된 '국제곡물 수급동향 및 대응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제 곡물가 급등에 따라 수입곡물을 대체하는 국산밀 증산과 국산콩 확보를 통해 수급불안에 안정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밀 생산량을 올해 4만2천톤 수준에서 2013년 7만5천톤으로 대폭 확대하여 2015년 밀 자급률 10%가 달성되도록 뒷받침한다.

밀 생산량 확대에 따라 수급안정을 위해 국산밀 수요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기존 군 급식을 통한 1만톤의 신규 수요 창출 이외에 우리밀협회와 주류산업협회 간 계약재배를 통해 주정용으로 3만톤 규모의 수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10월에 수매예산 342억원으로 약 7천톤의 국산콩을 시가수매하고, 2013년 국내 콩값 상승시 수매가격 수준으로 방출하여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수급불안정에 대응하고, 물가안정도 도모할 계획이다.

사료곡물 가격상승에 대비하여 사료업체와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2013년 예산도 기재부와 협의하여 증액하여 반영했다.

우선, 사료업체에 대한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 규모를 2012년 600억원에서 2013년 95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축산농가의 외상구입에 따른 배합사료 구입자금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현금구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규로 500억원 규모 융자금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외상거래에 비해 현금 구매시

약 20~25% 저렴하게 사료구매가 가능하다.

9월 중에는 지역별 조사료 활용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군부대·농협간 MOU를 체결하여 본격적인 조사료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국내 곡물업계는 8월 16일 기준 금년 수입 수요 물량의 98%를 확보(밀·콩·옥수수 1,426만톤 중 1,391만톤)하여 연말까지 국내수급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8월 23일부터 축산차량 등록제 실시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인 방역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축산차량등록제'를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및 운전자를 등록하고, 차량출입 및 이동정보 자동수집을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데,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건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및 차량의 운전자(1대의 차량에 다수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대표 운전자 등록)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대상 차량 중 가축운반, 진료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차량(주기적 방문차량)의 경우 등록 전에, 농장 차량은 등록 후 1년 이내에 농협중앙회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차량등록 후

차량무선인식장치(GPS)와 차량등록증(차량용 스티커)을 차량의 앞쪽에 장착해야 하며,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해서는 안되며,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항상 점검·관리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검역검사본부에서 운영하는 '차량등록제 운영센터(1544-6046)'에 신고해야 한다.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소유자 및 운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차량등록제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정보를 목적외로 사용자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밝히면서, 동제도가 정착되면 가축전염병 발생시 보다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질병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축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바, 축산농가 등 제도이행 대상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자세한 내용은 P102 '알아두시다 I' 참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할랄인증 방안 모색을 위한 열린 장(場) 마련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 8월 31일 닭고기수출연구사업단(단장 건국대 강창원 교수)과 공동으로 농식품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할랄 인증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금번 심포지엄에서는 닭고기 할랄 인증과 이슬람 시장 진출방안, 이슬람 국가 닭고기 검역 및 위생규정, 한식의 할랄 인증을 위한 제품개발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할랄(Halal) 식품이란 "이슬람에서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슬람에서 금기하는 돼지고기 및 이슬람식으로 도축되지 않은 육류, 술(알콜)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이슬람에서 허용하는 식품을 말한다. 이슬람 인구는 약 16억(세계 인구의 약 25% 차지)으로 할랄 제품관련 산업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식품업체들도 할랄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할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의 할랄 제품에 대한 인식 및 정보공유, 정책적 지원 등은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행사를 통해 할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관련 정보교류를 통한 신 시장 개척의 단초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위성환 축산물안전과장은 "최근 K-POP, K-Drama 등 한류 열풍이 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한국 문화, 특히 음식 문화와 연관된 제품 수출에 매우 큰 마케팅 효과가 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우리 농식품제품들이 할랄 인증을 받게 된다면 수출증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언급했다.

앞으로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닭고기 제품을 포함한 농식품 수출 증대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할랄 인증에 관한 내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 축산식품기업 대표자와의 간담회 개최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는 지난 8월 30일 한국육가공협회와 식육가공업 생산업체 등 12개 축산기업 대표자와 함께 고품질·안전 식육가공품의 생산 및 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식육가공업체는 최근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가 고부가치 제품인 생햄과 발효소시지 유형을 신설(2010. 11월)하고, 그간 많은 문제가 되었던 원료육 유래 털 등을 이물에서 제외(2011. 10월)하는 한편, 신설된 유형에 맞는 미생물정량화(2012. 7월)도 도입하여 업계의 다양한 고급제품 개발을 뒷받침 해준데 대하여 감사를 표시했다.

또한 국내에도 매장에서 식육과 함께 햄, 소시지 등 고급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형태(독일식 '메쯔거라이')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최근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기능성 축산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는 식육가공업 대표자들이 간담회에서 제안한 다양한 건의 내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호 소통이 가능한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세부

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

■ 동물복지 전략과 연구방향 제시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받고 있는 동물복지에 대해 국내·외 관련 동향을 소개하고, 앞으로 축산분야에서의 동물복지 전략과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동물은 식량과 가죽 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써 인간에 의해 가축화 됐으나, 인간의 문명이 발달함으로 인해 실험동물, 전시동물 및 반려동물 등 다양한 목적으로 길러지고 돌봐지고 있다.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용되는 실험동물, 오락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전시동물 등 다양한 목적으로 동물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학대나 감금 등 윤리적인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반려동물의 경우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고 교감하면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반려자 혹은 친구로 존중받고 있다.

동물복지는 동물학대를 방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으나, 사회와 문화가 발달함으로 인해 동물보호·복지까지 확장됐으며 세계적으로 동물복지에 관한 제도와 법률들이 강화되고 있다.

영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동물복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산란계를 시작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가 시행 중이다.

축산분야에 있어 동물복지는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품질의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동물복지를 고려한 적절한 가축의 관리, 운송 및 도축은 가축의 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써 이상육(돼지의 PSE, 육우의 DFD)의 발생을 낮춰 보다 고품질 육(肉)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의 감소는 가축의 면역력을 향상시켜 질병의 발생빈도를 줄여 항생제 등 약품의 남용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동물복지와 관련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고 축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동물에 대한 기초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

동물복지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개발과 더불어 동물의 상태를 이해하는 동물행동학 분야의 연구가 강화되어야 하며, 국내 사육여건과 국제적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동물복지형 대체 사육시설의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

■ 1인당 가공육제품 소비량 일본의 3분의 1 수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가공육제품 연간소비량은 3.8kg으로 일본 10.6kg과 중국 8.8kg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부진한 가공육제품 소비확대를 위해 지난 8월 29일 한국육가공협회와 공동으로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시험장에서 ‘한·중·일 육제품 개발 및 소비동향’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내의 식육소비는 특정부위에 고착화돼 있어 축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신선육 위주의 대안으로 개선할 부분이 많다.

특히, 돼지고기 생산량의 70%가 다리살과 등심, 안심 등 저지방 부위로 이들 부위의 소비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공육제품의 소비 확대가 필요하다.

국민 1인당 가공육제품의 소비량도 일본은 10.6kg으로 가장 많으며 중국 8.8kg, 한국 3.8kg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육제품 소비가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비량의 증가를 살펴보면 중국이 가장 크고, 일본과 한국은 완만한 증가를 보여 우리나라의 육제품 소비량 확대가 필요하다.

중국 소비자들은 고기 외 다른 첨가물(증량제)이 들어있지 않은 육제품을 선호한다. 또한 가공육제품이 신선육을 대체하는 추세로 풍미와 제품 형식이 다양화 되고 있다.

일본은 베이컨, 햄, 소시지의 소비량이 1인당 4kg로 제일 많다. 소시지의 경우 개인 소비량이 2.5kg 정도로 베이컨이나 햄의 합계보다 2배 정도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나눠 먹기에 좋은 비엔나 소시지는 1.67kg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며 앞으로 소비량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고령화의 영향으로 육제품 소비는 10년 동안 정체돼 기업에서는 가격은 낮추고, 품질이 좋은 제품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 육제품 개발 방향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된 국산원료를 사용하고, 몸에 좋지 않은 첨가물은 낮추며, 기능성 물질을 첨가해 웰빙형 건강육제품 개발이

제시됐다.

국내 육제품 소비촉진을 위해 소비자 신뢰회복, 제조 및 판매활성화, 새로운 소비 창출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육가공 기술의 대중화, 제조 및 판매활성화를 위해서는 식육 및 육제품 판매업, 체험장, 음식점이 접목된 새로운 판매방식의 도입, 신소비 창출을 위해서는 육제품에 대한 소비층 확대와 육제품을 이용한 요리법 개발 보급이 제안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

■ '축산유통' 앱 서비스 실시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최형규)은 지난 8월 14일부터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모바일 서비스, '축산유통' 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축산유통 정보 전문 포털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모바일과 홈페이지 서비스를 오픈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사용자가 쉽게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축산유통' 앱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모바일 '축산유통' 앱은 실시간 도매시장 경락 가격, 유통단계 가격, 축산·등급통계, 등급·이력 조회 및 맛집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한우·육우·한돈 대표가격과 매일 최신의 축산뉴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외 축산의

생산·유통 관련 정보와 2천개의 축산지식정보, 6,200개의 축산용어, 축산단체에서 제공한 천여 개의 축산 레시피와 2천개의 고기맛집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축산유통' 앱은 구글 play 스토어에서 '축산유통'을 검색하여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앞으로 아이폰 사용자를 위한 앱 개발과 모바일 상에서의 검수시스템 추가 등 관계기관 및 사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해 나갈 예정이다.

■ 창의적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8월 23일부터 31일까지 2회에 걸쳐 5급 이하 직원 33명을 대상으로 「신뢰와 열정 문화구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5급 이하 직원들의 필요역량인 의사소통, 표현력, 창의력, 적응력 등 향상과, 품질평가원이 지향하는 T자형 인재에 맞추어 역량강화 전문교육프로그램으로 편성·진행되었다.

품질평가원은 지난 2010년부터 창조적 핵심인력 양성 프로그램(PPK: Professional Program of KAPE)에 따라 직급별 역량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3월의 '간부직원 통합조정관리 능력' 교육을 시작으로 4월에는 '3급 팀장 역량강화 교육'을, 6월에는 '4급 직원 문제해결 능력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교육은 등급판정 현장에서 실무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5급 이하 직원이 교육에 참여했다.

최형규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2회에 걸친 특강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기학습과 개발에 노력하고, 지적교류 활성화와 인적자산 축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인정받는 축산전문가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하반기 축산물 가격 전망과 대응 정책워크숍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동필)은 지난 8월 22일 '2012 하반기 축산물 가격 전망과 대응'이란 주제로 정부관계자와 전문가, 언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이동필 원장은 “국제곡물 가격 급등과 경기침체, 축산물 가격 하락, 폭염의 영향으로 가축 폐사가 발생하는 등 축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문을 열어, “현안문제에 대한 축산관련 단체, 언론, 정부와의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정책 워크숍이 우리나라 축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원 우병준 연구위원은 '2012년 하반기 주요 축산물 가격전망'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대부분 축종의 사육두수 과잉에 따른 공급량 증가와 수요 부진에 의한 하반기 축산물 가격 약세를 전망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된 각종 소비 프로모

션 및 할인행사의 수요 증진 효과 약화 우려와 배합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 경영 악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우 연구위원은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배합사료가격안정기금, 가격보험제도 등과 같은 중·장기 검토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원 정민국 축산실장이 진행한 종합토론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성구 사무관, 계관 자조금관리위원회 안영기 위원장, 전국한우협회 장기선 사무국장, 대한한돈협회 정선현 전무, 한국오리협회 이강현 전무, 한국계육협회 이재하 부장, 대한양계협회 김재홍 부장, 낙농진흥회 조재준 부장, 내일신문 정연근 기자,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등이 참여해 축산업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토론내용은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하여 생산자단체와 연구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의 중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 및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노력과 관계 법령 개선이 요구되었으며, 생산자단체의 사육두수 감축을 위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과 자구책 마련의 중요성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사업 강화와 국제곡물시장 동향 및 아시아의 거대 축산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정보제공도 요구되며, 축산물 소비측면에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필요성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외에도 가격보험제도, 배합사료안정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 조규담 신임원장 취임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지난 8월 17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조규담 신임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조규담 원장은 1977년 행정고등고시(21회)에 합격하여 산림청 임업연수부장,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파견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관리부장, 농수산식품연수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등을 역임한 농림행정 전문가이다.

특히, 1999년에는 농촌지역 농업용수 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물 관리 유공 근정포장을 받기도 했다.

조규담 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우리원이 앞으로 축산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축산물위생안전 전문기관이자 경쟁력 있는 준정부기관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축산물HACCP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 워크숍 개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지난 8월 16일 기준원 증부지원에서 국립한경대학교와 공동으로 ‘축산물HACCP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본 행사에는 기준원 관계자를 비롯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농축산업 분야 정부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내 축산물HACCP 제도 및 시스템 구축 현황 설명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축산물 안전관리 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워크숍 마지막 일정으로 유가공업과 집유업 HACCP 지정 작업장인 남양유업(주)공주공장(충남 공주시 장기면 소재)을 방문하여 국내 HACCP 시스템 적용 현장을 견학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내 축산물 HACCP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국내·외 축산물 안전관리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상호 발전적인 축산물 HACCP 운용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본 행사를 통해 축산물 안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후 축산물HACCP 관련 기술 및 기술인력 교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